

나실이랑 공치를 먹었다.  
아니 공치는 그저 찬으로 나온 것이었는데 Main이라고 할 만큼 훌륭했다.  
“어쩔 이렇게 깨끗하게 죽었을까”  
나실이 말했다.  
“그러게, 미동도 안 하고 반듯하네”  
은하가 말했다.  
“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인 공치야”  
나실이 말했다.  
“음,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사정하지 않았어” 은하가 말했다.  
“음, 아프다, 신음도 한 번 안 낸 거 같아. 그냥 딱 죽었어”

다시 나실이 말했다.

“자, 먹어볼까?” 푹!

은하가 젓가락으로 그 선비님의 몸을 찔렀다.

“음, 맛있게 먹자”

나실이 이어 젓가락으로 깨끗한 지체를 세게 찔렀다.

“이 꼬리 좀 봐. 정말 날렵해”

“눈빛도 예사롭지 않지?”

우리는 먹으면서 계속 칭이 마르도록 공치를 칭찬했다.

살점을 다 떼어먹은 후

“와, 척추도 깨끗하네. 가시가 일직선이야” 나실이 말했다.

“음, 가져가자” 은하가 말했다.

'뺨대있는' 점심식사였다.

마음 맞는, 말이 맞는 친구가 있다는 건 얼마나 맛나는 일인가!

◀그뽕 그랬지▶ 원기소

먹을것이 그리 흔치 않던 시절에 원기소는 영양제로 보다는 간식으로 더 먹고 싶었습니다. 부잣집 아이들이 주로 먹던 원기소는 이름그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에 힘을 주는 영양제였습니다. 요즘 아이들이 원기소를 알리 없지만 수수깡,논밭,깡묵이,아카시아 꽃으로 영양제를 대신하던 그 낭만 또한 상상치 못할 겁니다. 그 때의 천연간식이 오늘을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뛰어 다녔을 것을.....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“예수!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”(요13:35) <b>갈보리교회</b>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6권 24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5년 6월 5일
☎ 369- 5077 .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www.calvary.org.nz		

죽정이가 되는 12가지 징후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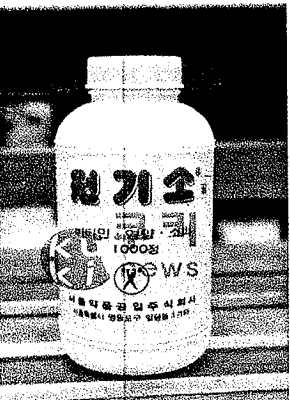
1. 죄와 유혹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을 때보다 죄에 대해서나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서 점점 더 무더기고 있을 때,
2. 이전에는 심각하게 다가왔던 죄나 결점들이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을 때
3. 꾀은 일은 기피하고 편안한 일만을 좇아 안일한 신앙 생활에 안주하고 있을 때
4. 믿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서 있는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이 쓴 책에서 있을 때
5.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보다 사람과 얘기하고 사람의 얘기를 듣는게 더 좋을 때
6.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 보다 돈에 대해서 더 즐겨 얘기할 때
7.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보다 사람의 눈을 훨씬 더 의식할 때
8.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보다 다른 논쟁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든지, 또 앞으로 있을 교회의 행사에 더 관심이 가고 있을 때
9. 나와 의견 차이가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는 대신 그들을 눈에 가시로 여겨 쓴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
10. 마음을 다해 주의 날을 준비하고 임하는 대신 표면적인 의식에만 참여하고 있을 때
11.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내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갈망하여 그것을 좇아갈 때
12. 세상이 점점 더 살 만한 곳으로 다가오고, 반면 죽음과 그 뒤의 영원이라는 주제가 내게 싫증날 때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
보리떡을 든 어린아이를 찾아라  
찾다가 못찾으면  
내가 보리떡을 든 아이가 되자.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
신뢰받는 사람이 되라.  
이 세상은  
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있다.



# 주 일 예 배

(\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 광 송 Gloria	Calvary	다 갈 이
참 회 의 기 도 Confession Pray		
용 서 의 선 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 도 자
찬 송 Hymn	91장	다 갈 이
기 도 Pray		정덕수 장로
	성 찬 식	
분 병	분병위원	다 갈 이
분 잔	분잔위원	
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열왕기하 2:1-11	인 도 자
성 가 대 찬 양 Choir		은 십자가 성가대 (구역장, 인도자, 담당)
설 교 Sermon	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172장	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갈 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(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### ◆6월의 예배위원◆

### ◆6월의 교회력◆

일자	기 도	헌금위원	주방	은십자가	주 일	예배와 모임
5	정덕수	김용석	7구역	구역장, 인도, 담당	5	성찬주일
12	정희자	김영경	8구역	나무십자가	12	구역예배 (10)
19	지찬영	김윤숙	황준직	나무십자가	19	식사친교주일
26	최재학	김인희	9구역	나무십자가	26	이삭줍기주일
						선교회, 당회

2005년 교회생활	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.
1. 성경 1독만 하기(하나님 사랑)	*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.
2.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(이웃 사랑)	
3. 처음 만난 날 처럼(교우사랑)	
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낮 12시   수요일예배: 7:30 pm	새벽기도회: 금 6:00   청년부: 토 저녁 4시

- 교우소식  
\*<등록> 김석목, 김윤자 집사 ☎(09)236-0239 494 Pinnacle Hill Rd. Bombay
- 정기구역예배 주간입니다. <금요일 저녁 7:30>
- 은 십자가 성가대: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.  
\*오늘 구역장, 인도자, 담당자들의 은십자가 성가대를 마지막으로 다음주일부터는 나무십자가 성가대로 구성됩니다.
- 나무십자가 성가대원" 모집  
\*지금이 아니면 시간은 흐릅니다. 내게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매 주일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실까요? (문의: 최득수 성가대장, 신경화 집사)
- 협동목사: 박성천 목사 (서울대 약학과 졸업, 트리니티 신학대학 졸업)  
\*가족: 정경애 사모, 정은(F5) ☎ 625-1088, 4 Rustic Ave. Hisborough  
\*우리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(신앙상담, 심방, 청년부)
- 청년 1부: "70년대생 이상" 세대의 청년부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.  
<모임> 매월 셋째주 금요일< 6월 17일 저녁 6:30, 교회>  
\*어른들께서 보시기엔 이제 꽃봉우리 같은 나이, 그러나 청년들 사이에선 어느 새 노장의 의연함을 갖춘 선배들이 되었습니다. 자녀들에게 참여를 독려바랍니다. (문의: 김경일 집사 027-209-9379, 김대현 021-608-843)  
\*참고 '청년2부' 모임 "80년생이후" <토요일 저녁 4시>
- 수요일예배: 찬양과 기도와 성경공부 <수요일 저녁 7:30>  
\*6월부터는 날이 풀리는 계절까지 따뜻한 Heater를 지퍼놓고 Hall에서 드립니다. 뜨거운 찬양에 운치있는 Heater의 열기가 더해지는 밤.....  
\*전날 밤새워 준비한 민수기 공부 첫날, 차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아내의 충고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. 너무 많은 것보다는 단단테로 전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

◀착한 시인들▶ 바 위  
유치환

내 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다.  
아예 애련(愛憐)에 물들지 않고  
희로(喜怒哀)에 움직이지 않고  
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 
억년(億年) 비정(非情)의 함묵(緘默)에  
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 
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 
흐르는 구름  
머언 원뢰(遠雷)  
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,  
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 
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다

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기쁨과  
즐거움, 함몰될 것 같은 슬픔이나  
비에, 이 모든것에 흔들림 없는 의  
연함으로 대할 수 있는 나이는 언  
제일지요. 수 없이 지나는 그런 자  
국들을 속으로 속으로 품고 지내면  
바위같은 기쁨이 생길지 아니면 텅  
빈 속을 감추며 섰는 마을 앞 고목  
이 될지요?  
비바람이 한 주내내 출렁이던 날,  
예배당의 빈 터에서 멀지 않게 서  
있는 Mt Eden이 의연한 바위처럼  
느껴졌습니다.